우암학원 창학67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751호 1판 (음력 4월 2일) 2018년 5월 16일 수요일

도청 앞 집단발포 5시간 전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軍, 실탄 분배·발포 준비했다

기갑학교 부대사에 오전 8시 '진도개 하나' 발령

김희송 전남대 교수 "발포 명령자 추적 단서"

1980년 5월 21일 낮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5시간 전 계엄사령부가 최고 경계태세인 '진도개 하나'를 발령하고 예하부대에 실탄을 조직적으로 분배한 사실이 기록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5·18 연구자들은 이 문서에 대해 시위가 격해져 우발적으로 발포가 이뤄졌다는 '자위권 보유 천명'에 대한 신군부의 논리를 뒤집는 새로운 증거로 보고 발령권자를 추적하면 발포 명령자까지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5일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연구교수는 "'육군기갑학교 부대사'(部隊史)에서 1980년 5월 21일 오전 8시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 예하 부대에 '진도개 하나'가 발령됐고 그에 따라 해당 부대에 실탄이 배급됐다는 내용을 기록한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육군기갑학교는 광주진압을 사실상 총괄 지휘한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에 배속된 부대로, 당시 전교사 예하 부대는 3·7·11공수여단, 20사단, 31사단이 포함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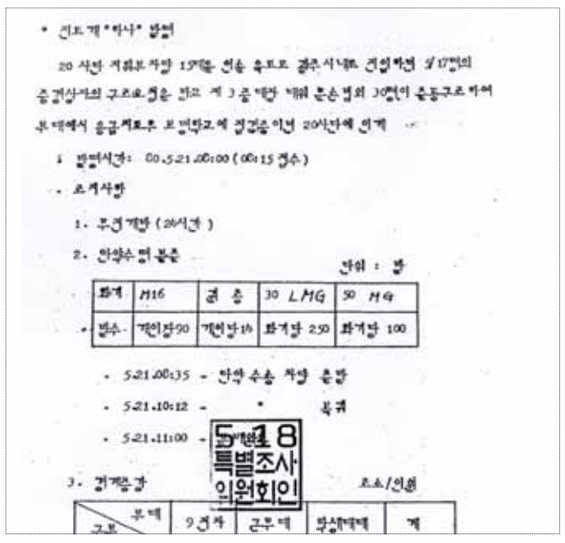
'진도개 하나' 발령은 그동안 군 문서에서 확인된 바 있으나, 실제 이를 근거로 5월 진압을 주도한 전 부대에 실탄이 조직적으로 분배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전교사 예하 부대에 '진도개 하나'가 발령됐다는 것은 사실상 발포명령이나 다름 없다고 해석하는 전문가도 있다.

무장공비 등 적의 침투나 도발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경계 태세인 '진도개'는 '하나·둘·셋' 등 총 3단계로 나뉜다. '셋'(대기 태세)은 군사적 긴장이 있을 때, '둘'(출동 태세)은 침투·도발이 예상될 때, '하나'(전투태세)는 침투·도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확실할 때 발령된다. 진도개 하나에 따른 조치는 탄약 기본 휴대량 지급 및 추가 보급, 유·무선 통신 24시간 개방 운용 등이다.

실제 광주에 투입된 전교사 배속 부대는 21일 오전 8시 '진도개 하나'가 발령되자 오전 11시까지 전 부대원에 실탄 90발씩을 지급했다. 같은 날 오전 8시 15분 '진도개 하나'를 전파받은 육군기갑학교는 즉시 무전개방(24시간), 경계인력 증강과 함께 탄약분배를 수행했다. 오전 8시 35분 탄약 수송차량이 출발해 10시 12분 부대로 복귀했으며, 탄약을 받은 부대는 오전 11시까지 실탄 분배를 완료했다. 수량은 M-16 탄약 개인당 90발, 권총 탄약 개인당 14발, 30 LMG(30구경 경기관총) 화기당 250발, 50 MG(50구경 기관총) 화기당 100발이다.

같은 시각 광주교도소를 경비하고 있던 31사단에도 비슷한 분량의 실탄이 분배됐다. '511연구위원회' 내부자료에 따르면 당시 교도소에는 20일 31사단 96연대 2대대 소속 471명(장교 5명 포함)



육군기갑학교 '부대사'에 실린 5·18 당시 경계태세 '진도개 하나' 발령에 따른 조치 내용.

이 투입돼 있었다. 이 문서에는 '5월21일 오전 61훈련단장 실탄 4만발 헬기로 수송'이라고 적시돼 있다.

김 교수는 "'511연구위원회'가 5·18 왜곡조직으로 알려져 있지만, 굳이 이 같은 사실을 조작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서 군 작전일지를 토대로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실탄 4만발은 투입 인원으로 나눴을 때 20사단과 같이 개인당 90발 수준이다. 헬기로 수송한 점에 대해 김 교수는 시위대에 의해 31사단과 광주교도소간 병참선이 끊겨 공중으로 수송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계엄사가 '진도개 하나'를 발령한 이유로는 21일 오전 광주 시내로 진입하던 20사단 지휘부 차량 14대가 시민군에게 탈취된 사건이 꼽히고 있다.

'육군기갑학교 부대사'에는 이날 시민군의 공격으로 20사단 부대원 22명이 중경상을 입어 제3중대가 출동해 구조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김 교수는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재구성' 논문을 작성하고 있다.

김 교수는 "당시 계엄사 지휘부는 사단장 차량이 포함된 20사단 차량 탈취사건을 중대한 위기 상황으로 보고 즉시 '진도개 하나'를 발령한 것 같다"며 "신군부의 주장과 달리 '자위권 보유 천명'에 앞서 이미 발포에 대한 준비가 끝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5·18 최후 항쟁지 옛 도청 개방 1980년 당시 최후 항쟁지였던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과 경찰청 민원실이 15일 개방돼 시민들이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5·18 전야제 '10일간의 항쟁 재현'

17일 오후 7~10시 금남로

오전 10시부터는 '시민난장'

숭고한 오월 정신을 기리는 제38주년 5·18광주민중항쟁 전야제가 금남로 일원에서 펼쳐진다. 〈관련기사 3면〉

17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보아라 오월의 진실, 불어라 평화의 바람'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야제는 시민 배우와 전문 배우 200여명이 어우러져 1980년 5월 당시 10일간의 항쟁 상황을 재현하고, 시민과 함께 80년 오월 민주정신의 기억을 되짚어 보고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야제는 1부 '모두의 오월', 2부 '보아라 오월의 진실', 3부 '불어라 평화의 바람' 등 총 3부로 꾸며졌다.

1부에서는 '민주의 문' 통과를 재현하는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시민 배우와 전문배우들이 10일간의 항쟁을 재현한다. 또 죽은 자와 산 자를 매개하는 영매의 '망월의 춤'도 선보일 예정이다.

2부에서는 헬기사격이 확인된 전일빌딩을 매개로 종이를 대량살포하고, 오월 어머니의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합창이 이어진다.

마지막 3부는 최근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의 영상을 감상하고 광주지역 가수들이 평화를 주제로 한 공연을 연다.

이날 전야제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금남로 차 없는 거리에서 시민난장이 펼쳐진다.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는 유동사거리에서 금남로 본무대까지 오월의 진실을 알리는 80년 민주대행진이 재현된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은 15일 "전야제 당일인 17일 오후부터 내린 비는 5·18 기념식이 열리는 18일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보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남북고위급회담 오늘 판문점에서 개최

장성급 군사회담·이산 상봉 논의할 듯

남북고위급회담이 16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다. 〈관련기사 2면〉

통일부는 15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16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 대표단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우리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5명 내외의 대표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우리측은 지난 8일 고위급회담을 14일 열자고 북측에 제의했으며 북측이 16일로 회담일을 수정 제의해 합의됐다.

고위급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에 5월 중 열기로 한 장성급 군사회담과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논의할 적십자회담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6·13 표밭 점검 - 목포·신안 ▶5면
전라도 천년 인물-장성 박수량 ▶18면
KIA 윤석민 2군서 실전 투구 ▶20면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http://521festa.kr

기념식 &
개막 초청 Talk
5. 21.(월) 오후 7시
초청연사 : 황석영(소설가)

프로그램
기념식 5.21.(월) 19:00~20:00 개막초청 Talk 5.21.(월) 20:00~21:00
정책네트워킹 파티 5.21.(월) 18:00~21:00 시민정책마켓 5.22.(화) 10:00~17:00
광주시민총회 5.22.(화) 15:00~17:21 시민참여한마당 5.22.(화) 10:00~17:00
광주자원봉사박람회 5.22.(화) 09:00~17:00

문의. 제53회 광주시민의날 금남로 시민정치 페스티벌 행사사무국
T. 236-0521~2 F. 223-0523 E. 521festa@daum.net H. 521festa.kr B. http://blog.naver.com/521festa www.facebook.com/521festa